



쓰레기 매립지 위에 새롭게 피어난 생명의 하천, 난지천

유난히 더디 오는 봄기운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을 알았을까. 촉촉한 봄비가 내리고 난 서울에도 수줍은 봄꽃들이 꽃망울을 터뜨렸다. 따스한 봄 햇살을 만끽하며 서울 시민의 새로운 쉼터로 자리 잡은 월드컵 공원 내 난지천을 찾았다.

글 윤종환 · 사진 김성구

과거의 흔적을 지운 난지도

2002년 월드컵의 함성이 아직도 생생한 상암 월드컵경기장을 지나 노란 산수유와 개나리가 피어있는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니 어느덧 난지천 공원에 도착했다.

생태공원으로 다시 태어난 월드컵 공원 내 난지천에는 과거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다. 70, 80년대 서울 시민들이 쏟아내는 각종 쓰레기 매립으로 죽어가던 난지도, 그 주변을 감돌아 흐르던 난지천은 쓰레기 침출수로 오염되어 악취가 코를 찌르던 죽은 하천이었다. 1993년 서울시에서 난지도 쓰레기 매립을 전면 중단하고 매립지 안정화 사업 및 생태공원 조성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과연 이 죽은 땅과 하천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감히 단언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다.

그러나 10여년의 세월이 흐르고 월드컵을 앞둔 시점에서 서울 시민들 앞에 월드컵 공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모습을 드러낸 난지도와 난지천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었다. 악취를 거둬내고 다시 흐르는 난지천, 그 주변에는 갈대와 버드나무 등 식물이 보란 듯이 자라나고 있었다. 자연의 치유력은 이토록 대단한 것이었다.

서울 시민의 새로운 쉼터로 살아난 난지천

난지도의 공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난지천 공원은 월드컵 공원 내 평화의 공원과 이어져 있다. 난지천은 질 좋은 흙과 모래를 덮고 그 위로 평화의 공원에 조성된 난지호수에서 하루





5,000톤 가량의 물을 하천으로 흘려보내 유량을 유지하고 있다. 하천가에는 갈대가 우거지고 버드나무와 각종 식물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다. 하천 주변에는 어린이 놀이터와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하여 게이트볼장, 야외공연장 등 주민편의 시설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그 규모는 7만 3천 평에 이르는 적지 않은 규모이다. 휴일이면 하천을 끼고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로 활기를 띄고 평일에도 가벼운 운동복 차림의 산책객과 심심찮게 마주친다.

또한 크고 작은 나무들로 이루어진 작은 숲과 자생 야생화 등 난지도의 생태를 보여주는 700평 규모의 자연학습시설이 함께 자리한 난지천 공원은 일상에 지친 서울 시민들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공간으로 이미 자리매김 하고 있다.

난지천의 생태 복원은 지금도 진행 중!

친수형 생태 공원으로 거듭난 난지천의 주변 경관은 나무랄 데 없어 보이지만, 사실 생태 복원 사업은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2002년 월드컵 대회에 맞추어 공원의 조성은 마무리 되었지만, 매립지 안정화 사업이 완성되려면 조금 더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 현재 운영 중인 지반안정,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처리 등 안정화 시스템을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매립지 주변 오염도(수질, 대기, 토양 등)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이 모든 안정화 작업을 오는 2020년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난지천의 생태 복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자연의 치유력은 위대하다.

그러나 온전히 자연 그대로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죽어가는 난지도에서 살아있는 자연의 소중함을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고 깨달았다. 이제 우리가 스스로 망친 자연을 위해 다시 한번 숨고르기를 할 때다.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난지천의 모습은 우리 세대의 환경치유 노력의 성적표가 될 것이다. 🌱

